

## 세조 어제시 연구

이현지\*

<차 례>

1. 머리말
2. 세조의 시인식
3. 세조의 시세계
4. 맺음말

### <국문초록>

세조(世祖) 이전의 조선 군주는 거의 시를 짓지 않았으나 세조를 기점으로 후대의 군주가 상당수의 어제(御製)를 창작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시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세조의 시인식과 창작 양상은 성종(成宗)·연산군(燕山君)에게 계승되었으며 영조(英祖)·정조(正祖)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세조의 어제는 『열성어제(列聖御製)』에 50여 수가 수록되어 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세조의 시인식과 시세계를 검토하였다.

세조는 시를 통하여 신하들과 소통하고자 하였다. 세조가 ‘시언지(詩言志)’에 주목한 시초는 신하의 직언이 왕권을 약화시킨다고 인식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시를 통해 넉지시 간하던 『시경(詩經)』시대의 정신을 창화시의 실제적인 창작을 통해 구현하려 하였다. 또 시악(詩樂)을 통해 정치의 득실을 파악하고 풍속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악부(樂府) 창작을 주도하였다.

세조는 천자(天子)인 단군(檀君)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선 중심의 천하 질서 구축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군신의 동지적 유대를 중시하여 공신을 우대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어제시를 내리며 각별한 정을 보인 인간적 친근미는 후대에도 인구에 회자되며 칭송되었다. 군신 간의 공고한 관계를 권력 기반으로 하여 부국강병을 추구한 세조는 자신의 지배 영역을 무경계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세조는 그 이상을 호월일가(胡越一家)라는 시 제목으로 암시하였는데, 무경계의 영토를 향한 일념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서 얻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 우주에 어떤 경계도 없다는 형이상학적 비밀을 세조가 설한 바 있다. 불교를 매개로 천하를 통합하고자 한 세조는 호불주(好佛主)로 자처하며 민심의 귀의를 받고자 했고, 천명(天命)을 설명한 『주역(周易)』을 활용하여 충심을 유발하려 하였다. 신민의 교화를 목적으로 세조는 유불(儒佛)을 치도(治道)로 인정하였다.

주제어 세조(世祖), 어제시(御製詩), 악부(樂府), 호월일가(胡越一家), 유불(儒佛)

## 1. 머리말

모든 국면에 왕권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전제 왕권 시대에 문화 현상의 근원은 군주에게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문예 경향을 좌우하는 군주의 어제시는 그 자체로 본받아야 할 전범이었다. 어느 시기보다도 15세기에 왕실문학이 융성했던 요인을 군주의 호문(好文) 성향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군주가 문학과 정치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세조(世祖) 이전의 조선 군주는 거의 시를 짓지 않았으나 세조를 기점으로 후대의 군주가 상당수의 시를 창작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전제 왕권의 확립을 추구한 세조는 정치 담론에서 시언지(詩言志)에 주목하였다. 특히 민족 문학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악부(樂府) 창작을 주도한 점은 독특하다. 조선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세조가 신하들에게 중국의 시를 모방할 것이 아니라 조선의 시를 창작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민족 문학의 주체성을 드러내며 우리의 정서를 담은 악부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시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세조는 성종(成宗)·연산군(燕山君)에게 선례가 되었으며, 『시경(詩經)』을 중시한 의식은 영조(英祖)·정조(正祖)에게 계승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세조의 어제시가 미친 지대한 영향을 생각할 때 그 작품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느낀다.

세조에 대해, 국정 운영을 논하거나<sup>1)</sup> 불교 신봉을 논하는<sup>2)</sup>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어제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sup>3)</sup> 본고에서는 세조의 시인식과 시세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세조의 시인식은 당대 문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었으므로 15세기 문단을 이해하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면을 음미해볼 수 있는 시를 통해 세조의 새로운 면모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조의 어제는 『열성어제』에 50여 수가 실려 있다. 본고는 『열성어제』에 실린 세조의 어제를 논의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세조실록』을 참고한다.

- 
- 1) 강제훈, 「조선 세조대의 조화와 왕권」, 『사총』61(2005). 김태영, 「조선 초기 세조 왕권의 전제성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연구』87(1994). 정두희, 「대간의 활동을 통해 본 세조대의 왕권과 유교 이념의 대립」, 『역사학보』130(1991). 최승희, 「세대 왕위의 취약성과 왕권강화책」, 『조선시대사학보』1(1997). 최승희, 「세조대 국정 운영 체제」, 『조선시대사학보』5(1998). 최정용, 「세조의 집권과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8).
  - 2) 권연웅, 「세조대의 불교정책」, 『진단학보』, 75(1993). 서진원, 「조선 세조의 불교정책과 불서간행에 관한 연구」, 『도서관』47(1992). 박정숙, 「세조대 간경도감의 설치와 불전간행」,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6). 진성규, 「세조의 불사행위와 의미」, 『백산학보』(1997).
  - 3) 이종득, 「조선시대 어제시의 창작 양상과 그 의미」, 『장서각』19(2008)에서 세조 어제시의 양상에 대한 논의가 도움이 된다.

## 2. 세조의 시인식

### 1) 소통과 知人の 매개

세조는 시를 통하여 신하들과 소통하고자 하였다. 그는 온유돈후라고 하는 전통적인 시관에 주목하였다. 마음에서 나온 진실과 정성을 담아 표현하는 온유돈후의 정신이 군신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를 통해 던지시 간하던 『시경』시대의 정신이 반영되었을 때 올바른 간언이 이뤄지고 그에 따라 군주인 자신의 반응도 정성스럽게 표출될 수 있다고 여겼다. 정성되고 진실한 간언이 전제되었을 때 그 간언이 궁극적으로 군주에게 경계로 삼을 만한 말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 세조는 그러한 시정신을 창화시의 실제적인 창작을 통해 구현하려 하였다.

세조는 자신도 시를 통해서 신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던지시 건네고자 했으며 신하들의 말 또한 시를 통해서 은연중에 자신에게 진심으로 전달되기를 바랐다. 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치뿐만 아니라 무치까지도 시를 통하여 강조하였다.<sup>4)</sup> 그만큼 시는 군신 대화의 중요한 매개였다.

세조는 ‘시언지’의 본뜻이 소통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곤 하였다.

내가 본래 시에 익숙하지 못하나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라고 익히 들었다. 뜻이란 마음이 가는 것인데, 간다는 것은 떠나서 향해 가는 곳이다. 향해 간 곳이 드러나면 떠난 원점을 알 수 있다.<sup>5)</sup>

4) 세조는 세상을 구제함에 있어서 무예를 마땅히 급히 여겨야 할 내용으로 강조하고 경연은 그보다 못하다는 말까지 어제로 표현한 바 있다.(〈御思政殿受常參視事御製詩〉, 『열성어제』 435면 및 『세조실록』 6년 7월 26일조)

5) 『세조실록』 12년 3월 6일조, “予本不慣於詩, 而熟聞詩言志也. 志者, 心之所之, 之者, 發之所歸, 歸之所者既形, 則發之原者可知.”

인용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는 인간의 내면을 언어로 묘사해내는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어떤 것에 촉발되어 우러나는 마음은 발현될 수밖에 없었다. 내면을 외면에 나타내는 것이 시의 본질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표출된 언어를 보면 시의 근원이 되는 인품이나 시절이나 정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속에 품고 있는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하려면 덕성 함양이 불가결의 조건이었다. 소통을 목적으로 내면을 시로 옮기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예(禮)가 수반되는 까닭에 예에 의하여 인욕을 제어하고 도덕적 품성을 배양할 수 있었다. 시를 소통의 매개로 활용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세조가 ‘시언지’에 주목하게 된 시초는 신하의 직언에서 그 자신에 대한 반감을 간파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즉위 초에 기존의 재상 중심 국정 운영 체제를 개혁하여 모든 권한을 왕권에 직속시키자, 집현전 학사 하위지(河緯地)가 주나라의 제도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박하고 나섰다. 세조는 이를 왕권에 저항하는 행위로 간주하였다.<sup>6)</sup> 군주의 과오를 드러내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는 직언은 표현법에 있어서 문제시될 수밖에 없었다. 직언이 충심의 발로라고 하더라도 전제 왕권을 추구한 세조에게는 왕권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하위지 등이 일으킨 단종 복위 사건을 계기로 세조는 자신의 말을 ‘법’이라고 선포하여 불가침의 권위를 세웠다.<sup>7)</sup> 이로 인해 진언하는 신하가 아예 사라져 하정(下情)

6) 『세조실록』 1년 8월 9일조, “緯地啓曰 周制三公論道經邦, 三孤貳公弘化, 六卿分職, 三公·三孤雖不與事, 冢宰實兼治之. 臣願從周制. 傳曰 如此迂闊之言, 誰唱之? 季恂惶懼啓曰 緯地與臣言之. 卽召季恂等入. 上命緯地免冠謂曰 聽於冢宰, 君薨之制也. 汝以我爲薨耶? 且以予爲幼沖, 不能裁決庶務, 遂使權移於下乎? 命衛卒杖之.”

7) 『세조실록』 2년 5월 7일조, “夫吾言卽法也. 今之儒者, 一朝暴貴, 妄自高尚, 不顧大體, 專務目前之快, 甚爲不可.”

을 알 길이 없자 은근한 표현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시를 정치 담론에 활용하였다.<sup>8)</sup>

세조는 시를 통해 인품이 고상한 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신하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제목을 주고 시를 짓게 하거나 어제시에 차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 시험 문제까지 시로 출제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주역』의 구결을 확정하여 반포할 때 실시한 과거에서 <반궁역재시(泮宮易齋詩)>라는 제목으로 지은 시를 보이고, 응시자에게 문체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답하게 하였다.<sup>9)</sup> 유학의 도통을 계승한 자신의 성덕을 칭송하는 절대적인 충성의 표현을 통해서 신하의 현부(賢否)를 판단했으므로 세조의 취향은 당시 문풍(文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조가 발영시(拔英試)를 행할 적에 당시의 명신·재상이 모두 참여하였다. 이튿날 사은(謝恩)할 때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접견하고 술자리를 마련하여 위로하며 친히 시 한 수를 지어 군신들로 하여금 화답하게 하였다. 백씨(伯氏)[成任]가 또한 입시하였다가 문질공(文質公) 이에(李芮)에게 귓속말로 “항상 상께서 죽하가 고지식하다고 하시니 그대가 한번 희시(戲詩)를 지어 바쳐보시오”라고 하니, 이공이 상의 시에 화답하기를 “성덕을 노래하며 덩실덩실 춤추려 하니, 바람이 소매에 붙어 춤사위 도와주네”라고 하였다. 상이 크게 웃으며 “내가 이에를 고지식한 선비라고 여겼는데 이 시를 보니 호기(豪氣)가 넘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였다. 즉시 궁녀에게 명하여 비파를 타게 하고 문질공의 시를 노래하게 하면서 문질공으로 하여금 일어

8) 『세조실록』 3년 11월 1일에 세조가 처음으로 신하들에게 어제시를 내렸다. 이때 신숙주가 쓴 <御製詩序>(『보한재집』 권15)에 따르면, 세조는 군신 간에 불신 풍조가 만연한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실록에 해당 일자에 세조가 “하정(下情)을 살피기 위하여 자주 관사(觀射)를 빙자하고 보필하는 신하들을 불러 보았다”는 기사가 있다.

9) 『열성어제』 416면 및 『세조실록』 12년 3월 6일조, “仍命赴試者, 或策或論或表或頌贊或詩賦, 隨意製之, 不拘常調. 於是, 對問者, 各以所能作之, 至有作小詩而中格者.”

나 춤을 추게 하여 마음껏 즐기고 나서 파하였다. 얼마 안 되어 문질공이 가정대부(嘉靖大夫)에 가자되었다<sup>10)</sup>

세조는 인재를 얻은 기쁨을 시로 표현하고 신하들에게 화답하게 하였는데, 쟁재 중에 이예의 시를 특히 가상하게 여겼다. 대부분의 집현전 출신과 마찬가지로 이예는 우직한 간언을 많이 하여 세조에게 고지식하다는 인상을 주었으나 군신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연회에서 하늘이 군주를 축복하기 위해 바람을 보내준다는 뜻으로 지복(至福)의 상황을 묘사하자 세조는 왕권으로 이예를 특별히 승진시켜주었다.<sup>11)</sup>

이와 같이 시를 통해 신하는 예를 갖추어 공경을 표현하게 되고 군주로서는 신하를 교화하는 동시에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 시를 소통과 지인의 매개로 활용한 세조의 성향은 후대 군주에게 계승되었다. 특히 전제 왕권 강화에 주력했던 연산군의 경우, 시를 신하의 뜻을 관찰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아울러 시를 매개로 신하들과 감정을 교류하는 인간적 면모도 보이는데, 이는 세조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2) 觀風과 치세의 매개

세조는 치란을 파악하고 세태를 알아보기 위해 백성의 생활에서 우리 나오는 민간 가요에 관심을 가졌다. 시정의 득실과 민생의 이해를 말하는

10) 『용재총화』 4권, 『연려실기술』 5권, 『세조조고사본말』 및 『임하필기』, 『문헌지장편』에 동일한 일화가 실려 있다. “世廟設拔英試，一時名臣宰相皆與焉。翌日謝恩，上御思政殿引見，設酌而慰之，御製詩一首，令群臣和之。伯氏亦入侍，附耳語李文芮質公曰，常上以足下爲迂闊，君可爲戲詩呈之，遂和云，歌詠聖德欲起舞，天風吹袖助回旋，上大笑曰，予以芮爲迂儒，今觀是詩，豪氣有餘者也。卽命內女彈琵琶，用文質所作詩歌之，令文質起舞，極歡而罷，未幾加嘉靖大夫。”

11) 이예에 대해서는 『성종실록』 11년 12월 25일 줄기 참조.

자가 없으면 들을 길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여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 가요는 언로의 역할을 했다. 예컨대 전주 부윤 변효문(卞孝文)이 올린 <완산별곡(完山別曲)><sup>12)</sup>이나 충청도 제천 사람 박효선(朴孝善)이 올린 농요<sup>13)</sup>는 일종의 헌시(獻詩)였다. 세조는 이를 관습도감에 내려 군신이 함께 즐기는 연회악(宴會樂)으로 삼아 애민 의식을 북돋우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농가를 부르는 여자를 뽑아 연회에서 가창하게 하여 고생스러운 민사(民事)를 상기했다는 사실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지방 순행에서는 농민을 모아 농요를 부르게 했는데 이는 군주의 통치를 대행하는 지방 행정을 파악하려는 것이었다.<sup>14)</sup> 민심을 알아보고 지방의 동태를 파악하는 매개인 민간 가요는 결과적으로 왕권을 공고히 하는데 활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민심을 바로잡고 사회 기풍을 변화시키는 데 시악(詩樂)의 효율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세조는 시와 악의 합일을 지향했다. 세조에게 시는 가사이고, 가사는 곧 시로 인식되었다.<sup>15)</sup> 기존의 악장이 당시 실정에 절실하지 못하다고 여긴 세조는 연회에서 군신이 제작한 시를 즉석에서 악기의 반주에 맞춰 가창하곤 하였다. 신하들이 형식적인 요소에 얽매어 내면의 진실을 온전히 피력하지 못하자 이렇게 비판하였다.

12) 『세조실록』 2년 1월 20일조. “全羅道觀察使李石亨, 進全州府尹卞孝文所製完山別曲, 御書曰 無所用也. 命藏于慣習都監, 是曲辭荒唐意鄙, 人皆笑之.”

13) 『세조실록』 2년 12월 9일조 “忠淸道堤川人朴孝善, 作農歌一篇以獻, 命下慣習都監.”

14) 『세조실록』 4년 4월 24일조. 세조가 백성의 고소를 듣는 법[聽民告訴之法]을 제정하여 지방 행정을 살피자, 수령이 무고를 당하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

15) 세조는 자신의 시를 악부(樂府), 가사(歌詞)라는 명칭으로 일컫고 있다. 조규익(『조선조 악장의 문예미학』, 민속원, 2005, 5면)에 따르면 조선조 당대에는 악장·악부·가사 등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아 제·연향의 아·속악에 쓰인 노랫말들을 악장으로 범칭한다고 한다.



시는 음률이 아니고 음률은 시가 아니다. 성정(性情)을 노래하거나 읊조리면 곧 시이고 음악이다. 그러므로 각 지방은 풍류는 같지 않지만 사람의 성정은 하나이다. 이로 보면 시는 뜻을 말하는 데 있고 음률에 있지 않은데, 경들이 다만 중국의 음률만 본받고 조선의 풍류를 고찰하지 않는다면 이는 월(越)나라 사람이면서 호(胡)의 말을 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sup>16)</sup>

이와 같이 세조는 시와 음악은 별개지만 언지(言志)의 자발성에 따라서 음악성은 저절로 생겨난다고 생각했다. 지방에 따라 서로 다른 민요라 하더라도 노랫말이 백성의 진실한 내면을 함축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세조는 중국의 시를 모방하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현실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를 창작하라고 역설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세조는 치세를 드러내는 악장을 창작하여 당시 문학이 나아가 갈 방향을 제시하고 신하들에게 화답을 구하여 어제시를 전범으로 삼게 하였다. 그리고 노래의 파급력을 이용하여 조정에서 불리는 노래로 자신의 덕화를 전파하며 신민의 교화를 도모하였다.

이전에는 신하가 왕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 악장을 제진했지만 세조는 군주로서 악장 창작을 주도하였다. 기존의 악장과 달리 세조의 악장은 신하에게 연회를 베풀거나 개선한 군사를 위로하거나 조회에서 신하를 효유하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악장은 세조가 부왕(父王)인 세종을 계승한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즐기던 정대업(定大業)과 보태평(保太平) 등의 악보에 따라 가창되곤 하였다. 정대업과 보태평은 세종조의 조회악(朝會樂)으로 원래 8구였는데 『시경』·〈남산유대(南山有臺)〉 등

16) 『세조실록』 5년 12월 28일조, “詩非音律, 音律非詩, 歌詠性情, 卽是詩樂. 是故四方不同風, 而人性則一. 然則詩在言志, 不在於律. 卿等徒効中國之律, 不攷之於國風. 是猶越人而胡語也. 將焉用之.”

의 음절을 취하여 6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sup>17)</sup> 음악에 맞춰 가창할 것을 전제로 창작된 세조의 어제시는 정형을 탈피한 6구가 일반적인 듯하다.

세조의 작품은 문왕·무왕의 작품으로 알려진 <녹명(鹿鳴)>·<출거(出車)>·<체두(杼杜)>등을 연상시킬 정도로 동일한 상황에서 창작되었다. 성왕(聖王)의 심정에서 발로된 문학을 전범으로 하여 자기 권력을 성화(聖化)하고자 한 세조는 함길도 도체찰사 신숙주와 군사들이 여진족을 복속시키고 개선하였을 때, 탕왕(湯王)이 걸왕(桀王)을 정벌하고 나서 대호(大濩)라는 음악을 만들고 무왕(武王)이 주왕(紂王)을 정벌하고 나서 상(象)이라는 음악을 만들어 태평을 나타낸 것을 본받아 평호(平胡)라는 음악을 만들어 자기 시대를 상징하고 이를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악장을 제작하였다.<sup>18)</sup> 온 백성이 변방을 안정시킨 그 정벌을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위업을 드러낸 악장에 대해 신하들의 화답을 구하며 공동 창작을 통해 치세를 장식하도록 했다.

시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음영(吟詠)인데, 유유자적하는 데서 스스로 흡족할 적에야 시운이 입에 조화를 이루고 시의가 마음에 젖어 덕이 몸에서 이루어지고 공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시의 교화로 인하지 않은 게 없다.<sup>19)</sup>

17) 『세종실록』 14년 9월 8일조 “禮曹啓, 會禮樂內隆安·休安等樂章, 取南山有臺音節, 用六句成一章. 文武二舞樂章, 取皇皇者華音節, 四句成一章, 二舞各製二章, 從之.” 『세종실록』 15년 1월 7일조, “上護軍朴堧啓, 前此宗廟及朝會樂·殿下陞降出入隆安之樂, 並用八句黃鍾. 今朝會樂, 既改用六句黃鍾, 宗廟樂亦當改用六句.” 『세종실록』 29년 6월 4일조에서 6구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세조실록』 6년 11월 11일조, 여진족을 복속시키고 개선한 군사들을 위로하는 <樂府三章>을 지어 관현에 올리게 하였는데, 이때 연주된 음악이 ‘평호(平胡)’인 것으로 짐작된다. ‘평호’라는 명칭은 『세종실록』 10년 11월 14일조에 보인다.

19) 『세조실록』 12년 3월 6일조, “所貴乎詩者吟詠, 自得於優游之際, 韻協於口, 義融於心, 德就於身, 功成於國, 無非詩之教也.”

이와 같이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자발적으로 뜻을 말하는 시를 음영하게 될 때, 그것의 공효는 자신의 덕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치세를 드러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세조는 이런 본보기를 시를 통해 올바른 성정을 함양함으로써 치국평천하를 이룬 주나라에서 찾고 신하들에게도 마음에 충만한 충효를 노래하도록 유도하였다. 『시경』의 <주남(周南)>·<소남(召南)> 등이 원래는 궁중에서 불리던 노래였으나 민간으로 전파된 것과 마찬가지로 조정에서 군신이 부르는 노래가 민간에까지 통용되면 신민이 다함께 성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조선 중심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정서를 읊은 악부 창작을 주도한 세조는 신민에게 민족의 주체성을 일깨우고자 했다. 그 결과로 조선 문학의 자주성을 천명한 『동문선(東文選)』이 편찬되었고 아울러 악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김종직(金宗直)의 『동도악부(東都樂府)』, 성현(成俔)의 『풍아록(風雅錄)』과 『풍소궤범(風騷軌範)』 등 구체적 성과가 점차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과물은 세조의 시 인식을 계승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 3. 세조의 시세계

#### 1) 공신 우대에 대한 관심

세조는 군주가 주도하며 이상적인 정치를 구현한 당태종을 모범으로 삼았는데<sup>20)</sup> 정관지치에서 군신 간의 친밀한 관계에 특별한 감동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세조가 당태종보다 우월하다고 자부한 한 가지가 바로 ‘군신 관계’에 있다. 세조가 공신을 예우한 방식은 성종·연산군 등에게

20) 윤정, 「조선 세조대 『훈사』 편찬의 정치사상적 의미」, 『한국학보』 28(2002), 46-51면.

선례가 되었으며 군신의 친밀함에 대해서는 후대에 악부로 제작되어<sup>21)</sup> 칭송되었으니 군주로서 ‘은혜’를 중시한 점은 세조의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취로정 못 가에 나가 종친·재상과 치도를 담론한다”<sup>22)</sup>라는 시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종친과 재상으로 이뤄진 공신은 세조 정권의 지지 기반이었던 까닭에 공신과의 관계를 쇠와 자석에 비유하며<sup>23)</sup> 어제시를 통해 남다른 은총을 표현하곤 하였다. 세조는 서책을 보다가 즉위하기 전에 세종을 추모하여 지은 시구절을 우연히 발견하자, 이를 신숙주(申叔舟)에게 보이고 시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전당은 의구한데 사랑바람 불어대니	殿堂依舊風自吹
봄별 대한 화초가 때를 알아 피어나네 [세조]	葉花知時對春陽
둘러보니 시사가 분분하기 그지없어	眼看時事正紛紛
하염없이 앉았으니 마음 절로 상하네 <sup>24)</sup> [신숙주]	獨坐悠悠心自傷

가·승구는 세조가 지은 것이고, 전·결구는 신숙주가 지은 것이다. 봄별에 피어나는 화초들이 의구한 궁궐을 화려하게 치장하자 세조는 세종조의 태평성대가 연상되어 부왕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다. 자연과 대조적으로 왕실의 상황은, 문종(文宗)의 뒤를 이어 유충한 단종(端宗)이 즉위

21) 李瀼, <瓢盃曲>, 『海東樂府』, 『星湖先生全集』8권, “鄭師瓜熟期罷戍, 周詩雨雪歌來思. 種瓢瓢成作息壤, 相公振旅向京師. 北走胡兒掩面哭, 南歸大旆雲霄隨. 宮中方貯輓脚春, 苦葉盃心雲漢詩. 不是瓠落無何鄉, 頗同黍破遼古時. 宸心制器像其像, 志喜名言茲在茲. 君臣樂動殷嶸嶸, 禮酒更進長生卮. 膾鯉魚鼈設大犒, 上尊餘瀝沾熊羆. 微草何知聖恩大, 一器銘功敵常旂. 旂入陶成作杜舉, 法筵留說彝樽辭.”

22) <御翠露池邊 與宗宰 論治道>, 『세조실록』 7년 1월 21일조.

23) 『세조실록』 5년 2월 6일조. “諸宗宰功臣之於予, 猶磁石之於鐵, 故相合無能間”

24) 『세조실록』 3년 3월 29일조.

하자 명망 있는 안평대군(安平大君)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본래의 조화를 잃어가고 있었다. 이에 세종의 부재가 한층 크게 느껴져 지은 연구(聯句)에 대해서 신숙주는 시사(時事)를 지켜보는 세조의 상심(傷心)을 알아주는 뜻을 덧붙였다.

세조가 이처럼 공신에게 계유정란(癸酉靖亂)을 환기시킨 이유는 그들의 시종여일한 충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이다. 그리하여 세종을 추모하여 지은 시라고 굳이 밝혀 자신이 부왕을 계승하였음을 천명하고 신숙주와 합심으로 완성한 이 작품을 승지뿐만 아니라 문신에게 화답하게 하여 시축을 신하들에게 나눠준 행위는 왕권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일종의 동맹 결의라 할 수 있다.

즉위 초에 왕권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정치적 사건과 여론 속에서 세조는 단종조의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공신을 우대하며 그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양녕대군(讓寧大君)에게 ‘한 세상 영화롭게 살며 백 년 향수하라[榮一世享百年]’는 뜻으로 정자 이름을 ‘영복정(榮福亭)’이라 지어주었는데,<sup>25)</sup> 이는 총애의 표현이지만 자신의 집권 과정을 돌아켜볼 때 종친이 왕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불안한 심리의 표출이기도 하다. 양녕대군에게 영화롭고 복된 삶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세조가 기대한 것은 공경과 근신으로 표현되는 확고한 충심이다. 따라서 그 정자에 ‘영화와 복’이란 뜻으로 사액을 내린 것은 모든 신하들이 전제 왕권의 강화에 사력을 다할 수 있도록 고무하는 상징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세조는 공신에게 왕실에 소장된 그림 중에 충의를 환기하는 사시도(四時圖)를 감상하게 하는 특혜를 베풀기도 했다.

25) 『세조실록』 5년 6월 1일조. “幸西郊觀稼，仍御麻浦讓寧大君禔新亭。御書名其亭曰榮福亭，註其下曰“榮一世，享百年。”

가시 울타리에 참새들 모여 있고	棘籬多萃雀
복사꽃은 가지 온통 붉구나	桃花滿枝紅
사방이 모두 봄빛이라	四面皆春色
노니는 나비 동서가 따로 없네	遊蝶無西東
하루아침에 단풍잎 떨어지면	一朝楓葉落
푸르고 푸른 것은 오직 소나무 <sup>26)</sup>	靑靑獨有松

참새 떼들이 가시나무 울타리에 몰려와 앉아 지저귀고 그 가시울타리 속에는 복사꽃이 만발하여 천지에 봄기운이 찬연하니 나비는 너울너울 춤추며 사방으로 날아다닌다. 그러나 봄날은 가고 단풍은 낙엽이 되듯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므로 난세에 정권을 잡아 치세를 누리고 있지만 다시금 난세의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우환 의식에서 세조는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신하들이 역심을 품지 않고 충성을 다하기를 바라는 뜻을 사시사철 한결같은 소나무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신자의 역할과 의리를 강조하며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갔다.

세조는 군신 간의 결속을 위해서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자신이 즉위하면서 동료들과의 동등한 관계가 상하 관계로 바뀌었지만 군신 사이에 거리감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세조는 공신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곤 하였다. ‘한 번 만났어도 오랜 친구와 같다[一見如舊]’<sup>27)</sup>라는

26) <出四時圖簇示羣臣 御製詩令判事宰監事成任書于簇>, 『열성어제』437면 및 『세조실록』 3년 11월 27일조.

27) 『신당서(新唐書)』에 따르면 당태종이 둔황공(燉煌公)으로 있을 때 방현령(房玄齡)과의 만남이 이와 같다. 세조는 즉위 이후에 ‘한 번 만났어도 오랜 친구와 같다[一見如舊]’는 구절을 신하를 대하는 원칙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세조실록』11년 1월 27일조에 생원·진사 급제자를 대궐 뜰에 불러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고 이들이 군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내린 어찰에 “어진이를 구하되 목마른 것 같이 하고, 한 번 만났어도 오랜 친구와 같다(求賢如渴, 一見如舊)”고 하였는데, 세조에게 인재를 얻은 기쁨인 동시에 자신에게 신하라는 존재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구절을 염두에 두고 신하를 허물없이 대하였다. 태조(太祖)를 본받아 연회에서 신하들과 대무(對舞)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구처럼 희롱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세조는 신하가 곧 친구라고 하며 군신 간에 의기가 상통함을 과시하곤 했는데<sup>28)</sup> 신하를 친구로 대한 예는 신숙주와의 관계에 잘 나타난다.

경이 나를 비웃었으나	卿雖笑我
표주박 이미 열렸으니	我瓢既成
쪼개서 잔을 만들어	剖而爲杯
지극한 정을 보이노라. <sup>29)</sup>	以示至情

여진족을 정벌할 계책을 세우던 날, 세조와 신숙주는 담장 아래 덩굴진 박의 결실 여부를 서로 점검했다. 이때 신숙주는 술김에 철이 늦어 박이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군신 간의 이 대화는 정벌의 성공을 가늠하는 우의(寓意)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신숙주가 대첩의 소식을 전해오자 세조는 어찰(御札)에 그때 당시의 일을 희롱하여 이 시를 첨부하였다.<sup>30)</sup> 세조는 마음을 열어 진심을 보인다는 뜻으로 박을 반으로 쪼개어 속을 파내고 술잔을 만들었다. 술잔의 곁에는 박이 덩굴지어 열매를 맺고 있는 형상을 그리고 안에는 친히 지은 시를 써서 신숙주에게 하사하였다. 이 같은 정겨운 일화를 소재로 이익(李瀾)이

28) 『세조실록』 5년 8월 26일조. “漢祖豁達多大略, 唐宗比漢祖差優. 然唐宗友之者少, 是不如我. 予之待卿等, 若唐宗之待秦府僚屬.”

29) <賜申叔舟瓢杯詩>, 『열성어제』 423면 및 『세조실록』 7년 6월 4일조.

30) 『세조실록』 6년 9월 11일조. “書紙尾曰 卿雖笑我, 我瓢既成, 剖而爲杯, 以示至情. 先是, 上獨引叔舟於交泰殿, 決計征討之日, 墻下種瓢方蔓, 叔舟醉啓瓢終不成, 以故戲之.”

<표배곡(瓢盂曲)>을 지은 것을 보면<sup>31)</sup> 세조가 공신을 우대한 일면은 신하가 선망하는 군주의 표상이었던 듯하다.

세조는 공신과 결속을 다지면서 그들의 덕(德)과 정(情)을 알 수 있다고 여겼다.<sup>32)</sup> 그리하여 주연을 베풀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에서 신하의 의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태평한 때 신하들과 노닐며 정성스런 마음으로 즐거운 술잔 나누네”<sup>33)</sup>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북돋우곤 했는데 연회에서 세조가 공신에게 사생을 함께 했으니 배신하지 말라고 이야기한<sup>34)</sup> 대목에는 신하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평소 두려운 마음이 드러나 있다. 역설적이게도 세조가 사육신의 충심을 가상히 여겨 “당대에는 난신(亂臣)이지만 후대에는 충신(忠臣)이다”<sup>35)</sup>라고 한 점에 입각해 보면, 군주인 단종을 배반하고 현재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공신이 도리어 난신이 되어 그 자신이 단종과 같은 입장에 처하는 최악의 경우를 극도로 우려했음을 알 수 있다. 세조는 공신이라 해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면증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기 때문에 양신(良臣)을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희롱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충성공(韓忠成公)[한명회]의 지모는 일반 사람보다 뛰어났다. 언젠가 신문충(申文忠)[신숙주]과 함께 세조를 모시고 조출한 주연을 즐길 때 상이 술에 취하여 문충공의 팔을 꺾으며 “너도 내 팔을 비틀어라”고 말하였다.

31) 李瀼, <瓢盂曲>, 『海東樂府』, 『星湖先生全集』권8, 주 15) 참고.

32) 『세조실록』 11년 6월 12일조. “夫立賢無方, 取人有術, 戲侮觀德, 杯酒觀情, 故可以知人於小藝, 不可知人於大禮.”

33) <和權學詩>, 『열성어제』 436면 및 『세조실록』 9년 1월 24일조. “乘泰戲群臣 交誠引歡卮.”

34) 『세조실록』 14년 4월 25일조, “召康純酌酒, 令龜城君浚進之, 上曰 卿等於北征, 勤勞太甚, 予何敢忘? 卿等亦同死生, 慎勿背信”

35) 成三問, <實記>, 『附錄』, 『成謹甫集』권3, “當代之亂臣 後世之忠臣.”



신문충이 매우 취하여 소매를 걷으며 상의 팔을 잡으니 상이 “아프다, 아프다”라고 하였다. 마침 예종(睿宗)이 곁에 있다가 낮빛이 달라졌다. 상이 예종에게 “나는 괜찮은데 너는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였다. 매우 즐겁게 놀다가 나와서 집에 돌아갔는데, 한충성이 문지기에게 “범옹(泛翁)[신숙주]은 평상시에 아무리 취해도 술이 좀 깨면 반드시 일어나서 등불을 켜고 글을 본 뒤에야 자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네가 가서 내 말이라 하고 말려라”라고 하였다. 문지기가 가서 보니 과연 그러하였다. 밤중에 임금이 깨어 내관을 시켜 가보게 하니 신문충 또한 잠자고 있었다 한다.<sup>36)</sup>

이와 같이 세조는 중신이자 측근인 신숙주조차도 신뢰하지 못하였다. 자신과 신숙주의 관계를 한고조(漢高祖)와 장량(張良), 당태종(唐太宗)과 위징(魏徵)에 비유하였지만 희룡을 통해 신숙주의 됴됨이를 시험해야만 하는 지경이었다. 신숙주의 반응이 본심의 발로인지 취중의 실수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내관을 시켜 신숙주의 행동을 관찰하게 할 정도였다. 이러한 세조의 마음을 한명회가 간파하고 일깨워 준 덕분에 신숙주가 무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세조의 의심으로 인해 희룡 끝에 처벌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은 현실을 시사한다. ‘주악을 내려 준 것을 사례한다 [謝賜酒樂]<sup>37)</sup>’라는 시제를 주고 충성을 다짐받는 행위를 통해서 의심은 구속력으로 탈바꿈하였다. 공신의 충심을 고취하기 위해 주악을 하사하며 특별한 자리를 마련할 때 언제나 어제시가 수반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36) 許葑, <世祖>, 『海東野言』1, 『海東野言』, “韓忠成公計慮出於人, 嘗與申文忠公, 侍光廟曲宴, 酒酣, 上拉文忠之臂劇飲曰 汝亦拉予臂. 文忠醉甚, 於袖袖持上臂, 上曰疼疼, 睿宗時在傍變色, 上語乎睿宗曰 我則可汝則不可, 極權而出到家, 忠成謂閹曰泛翁例常雖醉, 稍醒則必起點燈閱書, 後乃寢, 今日則不可, 汝往以吾言止之. 閹往則果然. 夜中上酒醒, 使中人視之, 則申亦就寢云.”

37) 『세조실록』 6년 8월 9일조.

확강함을 어찌 대축 밖에서 찾으리오	確強何求大畜 <sup>38)</sup> 外
번다한 세속 문자 따질 것 있겠는가	俗文浩積何足數
원훈이 마침 신하들과 함께 모였으니	元勳適與群臣聚
본디 원천이 있고 또 비에 젖었네	本有源泉又霑雨
화창한 봄 느긋하게 술잔을 들이키며	祈然縱盃當盛春
병속의 꽃 감상보다 더 나은 것 없으리. <sup>39)</sup>	類賞瓶花不有愈

역사서를 편찬하는 신하들이 봄놀이가 가지 못하는 것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주악과 꽃을 하사하고 아울러 어제시를 내렸다. 확강, 즉 확고한 왕권은 세조의 화두였다. 정통성이야말로 확고한 왕권의 토대이므로 선왕의 발자취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무왕(武王)이 태왕·왕계·문왕의 전통을 이어 천하를 소유함을 찬미한 『시경(詩經)』· <하무(下武)>를 신하들과 함께 읊조렸던<sup>40)</sup> 세조에게 역사서를 편찬하는 것은 정통성을 위해 중요한 일이지만 공신에게 어찰을 내리며 “원훈에게 주악과 꽃을 하사한다. 경들은 종일 글을 살펴보려고 하나 내가 한 글자도 살펴보지 못하게 만드노라”<sup>41)</sup> 라고 하며 무엇보다 은혜를 우선시하였다. 세조는 확고한 왕권의 원천을 공신과의 관계에서 찾은 것으로 이해된다.

## 2) 胡越一家를 향한 숙원

세조는 왕위를 찬탈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비상시의 변란에 대비하는

38) 『세조실록』에 “大畜內錄名也”라는 주가 있다.

39) <左議政權學中樞院使崔恒僉知中樞院事梁誠之攷實錄於春秋館 賜酒樂節花 仍賜御製詩>, 『열성어제』 420면 및 『세조실록』 9년 3월 29일조.

40) 『세조실록』 5년 1월 19일조. “又謂左議政姜孟卿·右議政申叔舟曰 ‘昭茲來許, 繩其祖武, 兩相足之. 叔舟對曰 於萬斯年, 受天之祐.’”

41) 『세조실록』 9년 3월 29일조, “御札曰 賜元勳酒樂花, 卿欲考書終日, 予能令不得考一字.”

것을 치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였다. 부국강병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사적 기반을 정비하여 남방과 북방의 이민족에까지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그 의지는 ‘호월일가(胡越一家)<sup>42)</sup>’라는 표현에 나타나있는데, 이 표현이 당태종의 정관지치를 칭송한 데서<sup>43)</sup> 유래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세조가 지향한 치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영토 확장 같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세조에게 급선무는 권력을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세조는 자신이 즉위하자 남만(南蠻)·북적(北狄) 가운데 신하로 자처하며 귀화한 자가 대거 증가한 점을 들어 자신의 집권을 천명으로 설명했으나<sup>44)</sup> 조정에는 세조의 집권이 부당하다는 인식 하에 왕위를 위협하는 정적이 잠재해 있어 군신관계에 불신 풍조가 만연하였다. 위기의식으로 군비 확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sup>45)</sup> 상황에 봉착한 세조에게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은 최대의 난제였다. 신민의 심복을 유도하려면 왕위 계승의 과정이 인력이 아니라 천명으로 전개된 것임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다. 세조는 군신이 함께 하는 관사(觀射)의 기회를 만들어 불세출의 위용을 과시하며 젊은 날 화살집에 쓴 시를 신하들에게 보였다.

강하게 잡아당겨 느슨하지 않으니	確強固不弛
신묘한 공은 인력으로 어렵다네	神功在力難

42) 『세조실록』 7년 7월 1일조, “召文臣于階上, 令賦胡越一家詩, 命叔舟及領議政鄭昌孫等第之, 以議政府舍人權綸爲第一. 其詩曰 聖主撫運 德洽仁深 山戎納款 島夷獻琛 懷我好音.”

43) 당태종이 돌궐과 남만을 굴복시키고 연회를 베풀 때 남만의 주장이 “호월일가는 예로부터 없었다”라고 하며 당태종의 정관지치를 칭송한 바 있다.

44) 『세조실록』 3년 7월 29일조, “予卽位以後, 南蠻北狄來附者甚衆, 皆願爲我子, 此天所誘也, 非予智力.”

45) 申叔舟, <御製詩序>, 『保閑齋集』 권15, “予非好爲此遊宴, 卿等皆予功臣, 從我遊既久, 今君臣禮隔, 恐上下情不相孚, 且雖安, 不可忘武備, 思欲有以振起之.”

석양을 띠도록 어기지 않으니  
영웅의 마음 절로 한가롭지.<sup>46)</sup>

不違帶斜陽  
英雄意自閑

즉위하기 전에 세조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예 기량을 연마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활시위는 느슨해질 겨를이 없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어김없이 과녁에 명중할 정도로 무예 수준은 신의 경지였다. 그와 같은 위세로 삼군을 호령한 세조는 여진족에게도 영웅호걸로 추앙받았지만 부단히 자기 갱신을 하며 국가를 위하는 평소의 뜻을 실현하고자 했기에 마음은 절로 한가로웠다. 이렇듯 자신은 집권을 도모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그 위덕에 감화된 인재들의 추대를 받은 것은 하늘의 계시임을 암시하였다.

그러므로 즉위 후에 여진인이 그 위엄에 감복하여 귀화하자 세조는 천명을 받은 군주임을 자부하면서 그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며 후대하였다.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이탈하는 것을 천명을 거역하는 행위로 간주한 세조는 귀화 여진인 올랑합(兀良哈)의 추장 낭발아한(浪孛兒罕)이 배반을 꾀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호군(護軍)으로 시위하던 그 아들 낭이승가(浪伊升哥)가 병을 치료하러 길주(吉州)의 온천에 간다는 구실로 휴가를 청했지만 중국에 가려고 한 음모가 드러나자 이들을 토벌하면서<sup>47)</sup> 천벌이라고 하였다. 함길도 도체찰사 신숙주가 지휘한 토벌군이 위력을 떨치고 개선하자 세조는 공을 치하하는 마음으로 악부를 지었다.

46) <題箭匣>, 『열성어제』 429면 및 『세조실록』총서.

47) 올랑합 토벌에 대해서는 한성주, 『조선 세조대 모란위 정벌과 여진인의 중군에 대하여』, 『강원사학』23(2008) 89-99면 참고.

하찮은 것들 교화를 거부했으니	蕞爾阻聲教
어찌 진노를 피할 수 있으리오	豈能逃一怒
치욕을 씻어 선왕들께 보답하고	雪恥酬百王
간흉을 제거하여 천고에 보답하네	除凶報千古
나에게 신하 하나 있으니	我有一介臣
풍상 속에서 지조가 드러난다네. <sup>48)</sup>	風霜操獨露

낭발아한 일족이 저지른 배은망덕으로 국가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여긴 세조는 자신을 한번 노하여 주왕(紂王)을 제거하고 천하의 백성들을 구제한 무왕(武王)에 견주어 정벌을 정당화하고 올랑함을 복속시킨 위업을 당태종이 설연타(薛延陀)를 토벌한 것에 비유하였다. 설연타 토벌 결과 주변의 위구르족들도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하며 순순히 복종해오자 당태종은 “치욕을 씻어 선왕들께 보답하고, 간흉을 제거하여 천고에 보답하네”<sup>49)</sup>라고 하였는데, 세조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 장구한 세월 계속된 선조의 적개심(敵愾心)과 백성의 여망에 부응했음을 자부하면서 자신의 존엄한 위업에 더 많은 여진족이 귀순해올 것을 확신하였다.

여진족 거주지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조선과 중국은 외교 분쟁을 지속해왔지만 중국이 낭발아한 일족을 처형한 사유를 물어왔을 때 세조는 조선이 중국에게 속국 취급받는 것이 분하여 참을 수 없었다.<sup>50)</sup> 이를 계기로 세조는 국위를 선양하여 조선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관심이 쏠렸다. 올랑함을 토벌하기 전, 구치관(具致寬)과 홍윤성(洪允成)에게 유시

48) <樂府三章·一章>, 『열성어제』 432면 및 『세조실록』 6년 11월 11일조.

49) 『全唐詩話』“貞觀二十年秋 帝幸靈州時 破薛延陀 回紇諸部遣使入貢 乞置官司. 上爲詩 序其事曰 “雪恥酬百王, 除凶報千古” 公卿請勒石于靈州 從之”

50) 『세조실록』 6년 5월 27일조. “予憤, 日夜忽起忽臥, 援弓撫劍, 旣而披書彈琴, 強顏言笑. 事勢已不靖, 正經綸之會耳, 不能煩說.”

한 글에 그의 진실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야인들은 발호(跋扈)하여 중국의 명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그들을 무서워하고 우리나라는 매사에 명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가볍게 보아 야인과 함께 두 나라로 여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오랑캐를 제어하지 못한 소치이다. 지금까지 야인들은 매번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데도 중국은 문책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언제나 중국의 명을 따르는데도 야인들은 날이 갈수록 교만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나라의 위세가 다 꺾여서 장차 중국의 군·현이 되고 말 것이다.<sup>51)</sup>

이처럼 세조는 중국이 조선을 여진족과 동등하게 보는 태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선이 중국에게 간섭받는 원인을 여진족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부족한 역량에서 찾았다. 위세로 그들을 압도하지 못하는 한 조선은 중국의 압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선적으로 여진족의 복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자주 국가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조선을 견제하려고 하는 중국에 대응할 태세를 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세조는 민족의 정통성을 문헌으로 증명하여 자존 의식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중국의 천자가 분봉한 나라가 아니라 천명을 받은 단군의 후손임을 굳게 내세우기 위해 상고 문화 개찬에 역점을 둔 『동국통감(東國通鑑)』 편찬을 계획하였다.<sup>52)</sup> 또 제후국에서는 행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폐지되었던 환구제(圜丘祭)를 회복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를 거부하고 조선의 주체성을 선

51) 『세조실록』 6년 5월 27일조, “野人跋扈不從中國之命, 故中國畏之. 我國每事不違命, 故中國易之, 比野人爲兩國, 是我國不能素夷狄之所致也. 到今野人每來侵而中國不責, 我國每從命而野人日慢, 如此則國威盡喪而將爲中國郡縣矣.”

52) 한영우, 『동국통감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상)』, 『한국학보』5(1979), 4-11면.

포하였다. 실로 자주적 강국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수(隋)·당(唐)을 물리치고 요동을 점유하여 중국에 대항한 고구려<sup>53)</sup>는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세조는 『진법(陣法)』·『병요(兵要)』·『병정(兵政)』·『병장설(兵將說)』·『무경칠서주해(武經七書註解)』등 다양한 병서를 간행하여 무인들에게 강습하게 하고, 수양제(隋煬帝)·당태종(唐太宗)이 친정(親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에 패한 사실을 『병요』에 실어<sup>54)</sup> 무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면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볼 때 세조가 올랑함을 복속시킨 이후에 고조선과 고구려의 도읍지인 평양에 순행한 것에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세조는 중궁, 세자 등과 함께 부벽루에 올라 유장하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시조 단군으로부터 기자, 삼국, 고려를 거쳐 조선으로 이어진 왕업을 생각했다.

넘실대는 강물 마를 날이 있겠는가	蕩蕩江流何窮盡
근원이 있는 것은 모두 이와 같다네	有其源者皆如是
堂堂한 왕업은 언제 이루어졌나	堂堂洪業云何肇
아득하고 아득한 태곳적부터라네	眇冥冥冥無天地
화란을 평정하고 왕권을 잡은 것은	叨握瑤圖平禍亂
내 어찌 사람들 지혜에만 의지했으랴	豈予全賴用衆智
첩첩 쌓인 산 둘러보매 하나의 영토이니	騁目千山成一界
고금의 호걸이 서로 다르지 않다네	古今豪傑無二致
군대 정돈하고 사방 살펴 백성 고통 구하니	治戎省方求民瘼

53) 신형식, 「고구려의 민족사적 위상」, 『선사와 고대』28(2008), 8-13면.

54) 『세조실록』 3년 10월 17일조, “文宗命予撰『兵要』, 刪煩就約, 便於觀覽, 精華悉具, 但簡秩猥多, 不學武臣難於遍閱, 故予欲極約之, 使武臣輩常熟讀. 如唐太宗, 隋煬帝親征不克等事, 使人聞之, 如昨日事, 庶有益乎?”

어찌 팔교만이 아름다움 차지하리오.<sup>55)</sup>

八教焉能獨專美

세조는 자신이 물려받은 선대의 왕업을 이루기 위해서 왕권의 정통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다. 자신의 왕위 계승이 사람의 지략에 의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명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천명을 받은 군주인 자신을 배반한 올랑합을 정벌하여 드넓은 영토의 주인이 된 세조는 백성을 보호한 것에 공지를 가지고 자신의 위업을 역사상 처음으로 요동을 차지한 고구려의 영웅호걸과 다를 바 없다고 과시했다. 조선은 기자의 교화를 입기 이전에 천자인 단군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기자보다는 단군을 높이고 중국에 대항한 강국을 이상화하여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을 존승하였다. 단군과 동명왕 그리고 자신을 동일시하여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조선은 동등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를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세조는 태조의 시에 차운하여 조선 중심의 천하 질서를 이루고자 하는 이상을 형상화하였다.

손을 뺀어 덩굴 잡고 푸른 봉우리 오르니	引手攀蘿上碧峯
암자 하나 허공에 드높이 걸려 있네	一庵高掛斗牛中
눈앞에 펼쳐진 세상 내 땅으로 할 수 있다면	若將眼界爲吾土
초·월이며 강남인들 수용하지 못하리오. <sup>56)</sup>	楚越江南豈不容

백운봉 푸른 산은 강남 산과 본디 다르니	碧峯自殊吳山峯
걸림 없는 도량으로 천명을 받았다네	握符優游大度中
전례 없는 슬기 위엄 온 천하에 자자하니	神武曠世聞率土

55) <與中宮世子幸浮碧樓有作>, 『열성어제』420면 및 『세조실록』 6년 10월 16일조.

56)太祖, <登白雲峰>, 『열성어제』 307면 및 『세조실록』 9년 9월 8일조.



우주를 끌어안아 남김없이 수용하겠네.<sup>57)</sup> 囊括宇宙莫不容

삼각산 백운봉과 중국 강남의 산이 원래 다르다고 구분함으로써 세조는 조선과 중국은 별개의 독립국임을 암시하였다. 중국이 조선을 그 변경을 방어하는 동번(東藩)[동쪽 제후국]으로 보는 시각을 부정하고, 주변 국가에 대해서 종주국을 자처하는 조선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동하(東夏)<sup>58)</sup>[동쪽 문명국]로 재인식하였다. 이러한 주체적 입장에서 여진족뿐 아니라 천하를 복종시켜 조선을 세계의 중심으로 확장하기를 소원하였다. 세조는 태조의 시와 그 시에 차운한 자신의 시에 서문을 붙이고 ‘성제시(聖製詩)’라는 이름으로 간행하여<sup>59)</sup> 선조의 숙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일념을 표명하였다. 세조가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비를 확장하는 등 군정(軍政)에 심혈을 기울인 뜻이 무력으로 천하를 정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명을 받은 군주를 상징하는 신무(神武)로 천하를 감복시키는 데 있음을 알게 된다.

### 3) 유불조화의 정치이념 추구

세조는 유불의 공존을 추구하였다. 천명과 민심이 왕위 유지의 관건이므로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신민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천명을 설명한 『주역(周易)』을 활용하여 자신의 즉위에 하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정권의 굳건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57) 世祖, <次太祖大王峰字詩韻>, 『열성어제』 415면 및 『세조실록』 9년 9월 9일조.

58) 여진족을 위무할 때 조선은 자국을 ‘동하(東夏)’라고 표현한 반면 중국은 조선을 ‘동번(東藩)’으로 일컬었다. ‘동하’라는 용어는 세조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영조실록』에 특히 많이 보인다.

59) 『세조실록』 9년 9월 10일조, “召都承旨盧思愼傳曰 昨日太祖詩及和詩, 令崔垣作序刊行, 名曰聖製詩.”

천명은 민심의 향배에 달려 있으므로 일반 백성에게 익숙한 불교를 옹호하여 신망을 얻고자 하였다. 그 자신이 호불(好佛)의 군주라 천명한 바 있지만<sup>60)</sup> 공조 판서 김수온이 성불(成佛)을 위해 면직을 청하자 “도는 세상을 구제하는 방편인데, 어찌 삭발하고 중이 되어야만 도를 닦겠는가?”<sup>61)</sup>라고 하였으니, 유불을 치도로 인식했으며 교화와 구제의 대상에 따라 치도를 달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위 이래 세조는 인간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의 군주로 자처하면서<sup>62)</sup> 권력을 자비의 실천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다. 문종조 유신들의 반대로 사라진 수륙재(水陸齋)를 부활하여 중음에 떠도는 망령을 구휼하도록 교지를 내린 것은 불교를 왕권에 편입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내 불행히 어려운 운수를 만나 살육한 자가 많았다. 형벌로 죽은 자들의 넋이 의지하여 먹을 곳이 없어 끝없이 괴로운 길에 허덕이고 있다는 게 매우 불쌍하다. 또 온 경내에 제사를 받아먹지 못하는 귀신 또한 많을 것이니, 각도로 하여금 정갈한 곳에다가 봄·가을로 수륙재를 베풀어 궁한 넋들을 구제하게 하라.<sup>63)</sup>

이와 같이 원혼과 무주고혼을 천도하는 의식을 국가적으로 거행하고 자비에 입각한 통치를 선언하였는데 천심을 본받아 호생심(好生心)을 가져야할 군주로서 폭력적인 이미지를 쇠신할 필요가 있었다. 권력의 정점

60) 『세조실록』 5년 2월 8일조, “孟卿進酒, 上執其手從容談論, 孟卿因更請禁僧徒橫行, 上曰 予好佛之主.”

61) 『세조실록』 10년 3월 15일조, “道在方便濟世, 豈藉削髮乃修?”

62) 『세조실록』 3년 3월 23일조, “子雖不德, 握符乘運, 子育萬姓, 爲一國神人之主, 日夜慮或有一物不獲其所者.”

63) 『세조실록』 2년 7월 26일조, “予不幸遭屯難之運, 殺戮者多, 甚憫刑憲之魂, 無所寄食, 長淪苦途. 且闔境無祀, 鬼神亦多, 其令諸道清淨處, 春秋設水陸, 以度窮魂.”

에 있는 군주가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려면 도덕적 권위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에서 『월인석보(月印釋譜)』를 백성들에게 배포하여 자기 권력을 정당화하고 신성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세조가 불도를 치도로 삼은 것은 죄의식을 매개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다. 인과응보를 인정한 세조는 망령을 구제하는 공덕을 쌓아 업장을 소멸하고자 했으나 살생한 자들에 대한 애도를 극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경세자(懿敬世子)가 병이 들자 자신이 저지른 죄의 과보라고 여기고 왕실의 우환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백성에 대한 구제 방침을 정하였다<sup>64)</sup>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 자신을 포함한 왕실 보호책이 곧 백성 보호책이었다. 그러기에 세조는 중생 구제의 일환으로 기존에 승유배불정책으로 꺾박받아온 승려에게도 잡역을 면제해주고 사원을 보호해주어 도를 닦을 수 있게 하였다. 세조의 비호로 인해 천대받던 승도들이 횡행하고 심지어 승려에게 의지하여 뒤에서 이익을 챙기는 자까지 생겨나자<sup>65)</sup> 유신이 법규를 세워 폐단을 없앨 방도를 간언하였다. 그러나 세조는 즉위하기 전에 지은 시를 신하들에게 제시하며 천지와 같은 성인의 마음을 지향하는 뜻을 보였다.

최상의 미는 단장을 힘쓰지 않고	至美不務治
큰 조화는 자취를 드러내지 않네	大造無顯迹
준마가 어찌 서둘러 달려가고	騏足寧急展
봉새가 어찌 거칠게 날개를 치리오 <sup>66)</sup>	鵬翔豈厲促

64) 『세조실록』 3년 9월 16일조, “傳旨禮曹曰 予爲亡哀, 追薦無所不極, 庶可寬懷, 尙念惠不及窮民, 條列于左.”

65) 成倪, 『慵齋叢話』 8권, “我國崇奉佛教久矣…(중략)…至世廟朝極矣. 僧徒雜於村落, 雖有淫暴, 人不得詰, 朝官守令亦不得抗, 至有賴僧蔭而獲利者.”

66) <絶句>, 『열성어제』 424면 및 『세조실록』 5년 2월 8일조. 신숙주의 『보한재집』 권3

가식하지 않은 순수함이 가장 아름답다. 가공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의 대자연이 가장 조화롭다. 준마는 서둘러 달려가려 하지 않아도 질주하게 되고 봉새는 날개를 치지 않아도 한 번 날아오르면 구만리를 날아간다. 이와 같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만물이 저마다 본성을 발현하게 되면 신비로운 조화가 이뤄진다.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정치는 인위적인 것이 배제될 때 실현된다.

세조는 즉위하기 전에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가 유교보다 우월하다고 확신했는데,<sup>67)</sup> 불교는 일체 중생의 불성(佛性)을 존중하여 평등하고 차별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위 후에 그는 부처와 같이 초월적인 힘으로 삼천세계를 통관(洞觀)하며 중생을 교화하는 데 뜻을 두고<sup>68)</sup> 이를 실현하기 위해 왕권을 활용하였다. 『능엄경(楞嚴經)』·『법화경(法華經)』·『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금강경(金剛經)』 등의 경전을 언해하여 백성이 부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성불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중생본래성불(衆生本來成佛)’이라고 설한 『원각경(圓覺經)』을 특히 중시하였다. 세조가 『원각경』에서 이름을 취하여 원각사(圓覺寺)와 십층석탑을 창건한 것에는 부처와 같이十方세계를 하나의 사찰로 보는<sup>69)</sup> 뜻을 공표하는 의미가 있는 듯하다. 이 같은 종교적 행위는 불교를

---

에 <己卯二月八日 上宴宗功于內殿 酒酣 因誦潛邸時所製詩句曰 至美不務治 大造無顯迹 驥足寧急展 鵬翔豈厲促 遂命臣分其字 衍爲 二十首 而進>라는 제목이 있다. 이때 세조는 여제시를 강맹경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신하들에게 보이고 강재를 올리게 하였다.

67) 『세종실록』 30년 12월 5일조, “首陽大君語曰 汝謂孔子之道, 與釋迦孰優? 任曰 孔子之道, 吾嘗讀其書, 粗知其義, 至若釋氏, 吾不嘗見, 其書未敢知也. 大君曰 釋氏之道過孔子, 不啻霄壤. 先儒曰 雖欲挫燒春磨, 無所施. 此未知其理而妄言者也.”

68) 『세조실록』 9년 9월 27일조, “予洞觀三界, 當做無量功德, 安肯創寺造佛, 屑屑於小者乎?”

69) 『세조실록』 12년 윤3월 28일조. 세조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의 대자비한 마음을 표현하여 “十方세계가 한 사찰(寺刹)이고 삼천 세계가 한 몸”이라고 하였다.

매개로 조선 중심의 천하 질서 구축을 시도한 정치적 의도와 관련 있다. 유구국에서 사신으로 온 승려 도은(道聞)이 원각사의 십층 석탑이 천하에서 제일이라는 소문을 듣고 탑 구경을 위한 일<sup>70)</sup>과 생불(生佛)로 알려진 세조를 친견하기 위해 유구국에서 사신을 파견한 일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sup>71)</sup> 또 올적합의 주장 비사(非舍)는 세조가 명경(明鏡)과 같이 맑고 깨끗하다는 말을 듣고 내조하기도 했다.<sup>72)</sup> 이러한 사실은 세조의 비전인 ‘호월일가’와 일정하게 겹치는데, ‘호월일가’는 무경계의 영토를 의미한다. 세조는 만물이 실체가 없다[空]는 진리를 깨달으면 이 우주에 어떤 경계도 없다는 궁극적 비밀을 시로 표현하였다.

만약 참으로 진리를 안다면	若能眞實知
사방이 트여 텅 빌 것이네	廓然空四際
삼계에 한 물건도 없을 것이니	三界無一物
무엇이 세간이고 출세간인가. <sup>73)</sup>	何者世出世

삼라만상이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은 인과의 산물이며 마음이 창조한 일시적 현상일 뿐 영원히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다. 중생이 생사

70) 『세조실록』 13년 3월 6일조, “道聞等拜辭, 因啓曰 僧遍覽中原寺刹, 聞圓覺寺塔爲天下最, 願今日觀賞.” 유구국의 사신 승려 도은이 왔을 때 세조는 여래 현상도(如來現相圖)와 관음 현상도(觀音現相圖) 등을 하사하였는데, 세조 8년과 세조 12년에 나타난 상서(祥瑞)를 그림으로 그린 것으로 보인다. 김수온의 <如來現相記>에 따르면 상서가 나타나는 것은 세조의 공덕이 부처와 같기 때문이라고 하며 불경의 내용을 인용하여 부처가 부처를 알아보고 응한다고 칭송하였다.

71) 『세조실록』 14년 6월 22일조, “上曰 汝等之來, 誰使之耶? 對曰 國王之弟閔意, 謂我等曰 朝鮮有生佛, 觀音現像, 舍利分身, 天雨·四花·甘露·須陁味之異, 心欲往拜, 以邈在一隅未敢.”

72) 『세조실록』 6년 4월 25일조, “引見尼麼車兀狄哈非舍等五人…(중략)…曰 聞上如鏡, 故來朝. 上曰 明鏡無心, 黑白自照. 功罪賞罰, 皆自取耳.”

73) <御序賢亭親製短韻九章·其九>, 『열성어제』 425면 및 『세조실록』 12년 5월 5일조.

왕래하는 세계에 한 물건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는데, 집착하는 까닭은 무경계의 실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경계가 없는 데서 사상의 대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실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유자들이 세간을 우위로 여기는 태도를 부정하여 무경계의 공간에서 무엇이 세간이고 또 무엇이 출세간인지 되묻고 있다. 당시 세조의 불교 신봉에 힘입어 승려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승단에 대한 세조의 후원으로 중의 나라 혹은 중의 시대라고 비방하는 현실에서 세간과 출세간을 구분하는 유불의 대립은 군신의 결속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당면 과제였다. 세조는 주자학만을 고수하는 유자들이 통유(通儒)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불경을 읽도록 명하고 명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다.<sup>74)</sup>

그러나 불교 전파만으로는 군신의 힘을 통합할 수 없었다. 세조는 왕권에 도덕적 권위를 더하는 불교 대안으로 왕권을 합리화하는 천명사상을 제시하였다. 또 유불의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자(孔子)가 자기 자식을 가르침에 있어 제자와 똑같이 하고 차별을 두지 않은 예를 통해 공자의 관점이 석가의 불이법(不二法)과 다르지 않음을 단적으로 증명하였다. 불교를 배척한 주자(朱子)는 공자의 무분별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sup>75)</sup> 경서의 집주를 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특별히 『주역』을 강조하면서 『역전(易傳)』을 지은 공자의 공덕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다.

시경을 산삭하여 사람 욕망 억제하고

刪詩人欲窒

74) 정효상(鄭孝常)·어세공(魚世恭)·유진(兪鎭) 등에게 『능엄경』을 읽고 강하도록 하였는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파직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조실록』 윤3월 7일 및 윤3월 8일조에 관련 기사가 보인다.

75) <御序賢亭親製短韻九章·其五>, 『열성어제』 425면 및 『세조실록』 12년 5월 5일조 “百子分枝派 程朱爲得宗 可惜門庭訓 誰知互西東”

주역을 풀이하여 천하의 일을 다 말했네	贊易能事畢
공자의 공과 덕을	尼父功與德
어찌 다 말하겠는가. <sup>76)</sup>	如之何罄述

세조는 신민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성정을 온유돈후하게 하는 『시경』과 천도로 인간사를 설명한 『주역』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주역』의 원리는 불교와 접점을 찾기 쉬운 까닭에 불교 교리를 유신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지만<sup>77)</sup> 유신들에게 자신의 즉위가 천명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설득시켜 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수단이기도 했다. 제후국인 주나라가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역』을 성립시킨 것에<sup>78)</sup> 근거하여 세조는 『주역』을 통해 천명사상을 유포하고자 했다. 즉위 하자마자 성균관에 거동하여 백관과 학생을 거느리고 『주역』에 조예가 깊은 강서관(講書官) 김구(金鉤) 등으로 하여금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를 강의하도록 명하기도 하고<sup>79)</sup> 과거 응시 자격에 『주역』의 도설(圖說)에 통달한 사람으로 제한을 두어<sup>80)</sup> 자기 뜻에 부합하는 인재를 뽑기도 했으나 폭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세조는 주자의 『역학계몽(易學啓蒙)』을 직접 해설한 『역학계몽요해(易學啓蒙要解)』를 편찬하여 군사(君師)로서 신하들을 교육시키는 열성을 보였다.<sup>81)</sup> 이 과정을 거쳐 세조

76) <御製頌孔子五章·其二>, 『세조실록』 11년 4월 23일조, 『열성어제』에 실려 있지 않다.

77) 유정엽, 「조선 초기 주역 중심의 유불대론 연구」, 『한국선학』23(2009), 11-17면.

78) 이선행, 「한국 고대건국신화와 역철학적 연구의 타당성」, 『양명학』18(2007), 15-18면.

79) 『세조실록』 1년 9월 10일조, “駕幸成均館, 率百官學生謁先聖, 宴諭御明倫堂, 宗親·議政府·六曹參判以上及侍臣入侍. 講書官兼成均司成金鉤·侍講官集賢殿副提學金禮蒙等就講坐, 命講河圖洛書.”

80) 『세조실록』 3년 5월 3일조, “傳旨禮·兵曹曰 予欲振文風·武氣, 作育人材, 值國家之根本, 儒生三通易圖說者·武士彎弓百三十斤者, 方許赴試, 不必備額, 隨材多少試取.”

는 자신의 집권을 ‘둔형(屯亨)’으로 풀이하고 신하들에게 충심을 다짐하는 시를 짓도록 하여<sup>82)</sup> 집권층의 분열된 마음을 통합하여 완전한 복종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즉위 초기에는 이 같이 왕위 계승의 원리를 신하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도상이나 상수역학에 주목하였다면 후기에는 의리역학에 주목하였다. 이는 창업과 수성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시대적 과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세조는 세자에게 자신은 난세를 만났지만 세자가 즉위할 때는 성세일 것이므로 불교를 신봉하지 말라고 하면서<sup>83)</sup> 『주역』의 구결을 정하였다. 어정주역구결(御定周易口訣)인 ‘신역(新易)’을 성균관 역재(易齋)에서 반포하던 날, 과거를 시행하면서 어제시로 문제를 출제하였다.

천년의 세월 끝에 명현이 모였으니	運流千載明賢衆
친히 신하들과 구결을 정했다네	親與諸臣分定訣
치는 종소리 반궁에 울려 퍼지니	鼓鍾聲播泮宮裏
자자손손 이 업적 이어가리라. <sup>84)</sup>	子子孫孫數時繹

세조는 직접 『주역』구결을 정하고 종친·재상을 비롯하여 유신에게 구

81) 『세조실록』 4년 8월 26일에 문신과 성균관 유생에게 『역학계몽요해(易學啓蒙要解)』를 내린 후, 문신 혹은 유생들과 함께 강하는 기사가 많이 보인다. 세조 8년에는 과거에서 사서삼경은 1책도 통하지 못하더라도 『역학계몽요해(易學啓蒙)』이 조통(粗通) 이상인 자는 분수(分數)를 주도록 할 정도로 역학을 강조하였다.

82) 『세조실록』 6년 7월 16일조, “仍設酌, 昌孫·叔舟·允成·明澮等進酒, 命入侍宰樞及闕內文臣, 次御製屯亨詩.” 이때 <御製屯亨詩序>는 崔恒이 지었는데 『太虛亭集』 권1에 실려 있다.

83) 『세조실록』 9년 10월 11일조, “上謂世子曰 予非不崇佛, 營建寺社, 不爲不多. 然此皆虛事. 達磨云, 造佛造塔, 必無功德. 汝不必盡效乃父之崇佛也.” 및 『중종실록』 1년 12월 18일조, “又謂睿宗曰 我雖奉佛, 固無害也. 汝若奉佛如我, 則必亡國·敗家.”

84) <泮宮易齋詩·五章>, 『열성어제』 416면 및 『세조실록』 12년 3월 6일조.



결에 대해 논란하게 한 끝에 유생을 가르치기 위해 성균관에서 ‘신역’을 반포하였다. ‘신역’은 의리역의 근간이 되는 공자의 『역전(易傳)』을 계승한 것임을 밝히고, ‘신역’의 보급으로 자손대대로 그 기풍이 확산되기를 기원하였다. 이와 같이 세조 말년에 ‘신역’을 반포한 것에는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왕위 교체와 그에 따른 정치 이념의 갱신을 의미한다. ‘신역’을 반포할 때 세조는 세자에게 유관(儒冠)을 씌우고 유생과 나란히 앉아서 논란하게 하였으며 세자에게 군도(君道)에 대해서 알려줄 때도 『주역』에 근거했을 뿐만 아니라<sup>85)</sup> 죽기 몇 달 전에 세자의 자(字)를 『주역』에서 취하여 명조(明照)라고 지어준 것에서<sup>86)</sup>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주역』구결을 정할 때, 세조는 주자의 상수적 해석보다 정자의 의리적 해석을 높이 평가하여 『역정전(易程傳)』을 ‘신역’의 기반으로 삼았는데, 정자는 군주와 현인 혹은 재상이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는 군신공치(君臣公治)의 현인정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자의 관점이 군주의 전제정치에 대한 견제 혹은 비판이라고 할 수 있지만<sup>87)</sup> 세조가 당시 유약한 세자에게 대신(大臣)에 대한 공경을 강조한 점을 미루어볼 때,<sup>88)</sup> 유약한 군주가 밝게 비추지 못함을 근심하지 않고 현인에게 위임하는 도를 잃을까 염려하였던<sup>89)</sup> 것으로 이해된다. 세자의 자(字)인

85) 『세조실록』 13년 8월 3일조, “上復謂世子曰 易云 何以聚財? 曰財. 蓋財聚則民聚, 財散則民散. 聚財之道, 莫若生之者衆, 食之者寡 爲之者疾, 用之者舒, 汝宜知之.”

86) 『세조실록』 14년 7월 10일조, “上命世子字曰明照, 取易繼明照于四方之義也” 明照라는 字는 『周易』離卦 象傳 “明兩作離, 大人以繼明照于四方.”에서 나온 것이다.

87) 정병석, 『『易程傳』을 통해본 정이천의 정치적 사유』, 『주역연구』5(2000), 27면.

88) 『세조실록』 13년 6월 22일조, “上顧謂世子曰 予告汝訓, 汝審聽之. 凡汝所先務者, 博學問, 敬大臣, 斯二者而已. 博學問, 則德崇業廣. 敬大臣, 則高而不危. 反是, 身必災, 國必喪. 汝宜卑以自牧, 學于古訓.”

89) 『周易』, 賁卦 六五에 대한 정자의 해석 참고, “六以柔居尊位. 本當有悔. 以大明而

‘명조’는 “밝음을 이어 사방을 비춘다”라는 뜻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의미하며<sup>90</sup> ‘신역’을 반포하면서 과거를 통해 선발한 인재를 장차 세자를 보좌해 줄 신하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조는 군신이 각기 합당한 도리를 지키면서 밝은 덕으로 천하를 교화하라는 당부를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 4. 맺음말

본고에서 세조의 시에 대한 인식과 어제시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조는 시를 통하여 신하들과 소통하고자 하였다. 군주의 과오를 드러내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는 직언은 전제 왕권을 추구한 세조에게 왕권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세조가 ‘시언지(詩言志)’에 주목한 것은 신하들을 교화하고 그 사람됨을 알아보는 방법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성향은 호문(好文)의 군주인 성종(成宗)·연산군(燕山君)에게로 이어졌다.

민심을 바로잡고 사회 기풍을 변화시키는 데 시악(詩樂)의 효율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세조는 시와 음악의 합일을 지향하였다. 시를 창작하는 행위가 덕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치세를 장식하는 매개라고 여겼다. 조선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세조는 조선 특유의 문학을 창작할 것을 주장하며 악부 창작을 주도하였다. 이후에 조선 문학의 자주성을 천명한 『동문선(東文選)』이 편찬되었고, 악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下皆順附。故其悔得亡也。…(중략)…六五。大明之主。不患其不能明照。患其用明之過。至於察察。失委任之道。故戒以失得勿恤也。”

90) 『周易』, 離卦 象傳, “明兩作離, 大人以繼明照于四方.”에 대한 정자의 해석이 이와 같다. “大凡以明相繼, 皆繼明也, 舉其大者. 故以世襲繼照 言之.”

김종직(金宗直)의 『동도악부(東都樂府)』, 성현(成俔)의 『풍아록(風雅錄)』과 『풍소궤범(風騷軌範)』 등 구체적 성과가 점차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과물은 세조의 시인식을 계승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세조의 시세계는 공신 우대에 대한 관심, 호월일기를 향한 숙원, 유불 조화의 정치이념 추구로 집약할 수 있다. 세조는 공신과 인간적으로 친숙해지기 위해 어제시를 통해 감정 교류를 하면서 그들을 각별하게 대하였다. 돈독한 군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조가 공신을 예우한 방식은 성종·연산군 등에게 선례가 되었으며 군신의 친밀함에 대해서는 후대에 악부로 제작되어 칭송되었으니 군주로서 ‘은혜’를 중시한 점은 세조의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군신 간의 결속을 통해 권력 기반을 다진 세조는 조선 중심의 천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이상을 호월일가(胡越一家)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조는 조선은 천자인 단군의 후손임을 문헌으로 증명하여 자존 의식을 확립하고, 요동을 점유하여 중국에 대항한 고구려를 모범으로 여기며 다양한 병서를 간행하여 무인들에게 강습하게 하였다.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비를 확장하는 등 군정(軍政)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무력으로 천하를 정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례 없는 신무(神武)로 천하를 감복시키는 데 있었다.

궁극적으로 세조는 불교를 매개로 천하 통합을 시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세조의 비전인 호월일가는 무경계의 영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조는 만물이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이 우주에 어떤 경계도 없다는 궁극적 비밀을 설한 바 있다. 즉위 이래 세조는 권력을 자비의 실천 도구로 활용하면서 민심을 얻고자 하였고, 군신의 힘을 통합하기 위해 왕권을 합리화하는 천명사상을 제시하였다. 세조는 신민을 교화하기 위해 유불(儒佛)을 모두 인정하면서 교화와 구제 대상에 따라 치도(治道)를 달

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세조에게서 비롯된 어제시의 전통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왕실 문학의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를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제시를 통해 최고 권력자의 위엄에 가려진 인간미도 느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역사적 사실도 소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列聖御製』, 규장각 영인본  
『世祖實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成宗實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燕山君日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中宗實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英祖實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金守溫, 『拭菴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한국문집총간 9)  
成三問, 『成謹甫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한국문집총간 10)  
申叔舟, 『保閑齋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한국문집총간 10)  
張 維, 『谿谷先生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한국문집총간 92)  
李 瀾, 『星湖先生全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한국문집총간 198)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한국문집총간 258)  
김성환, 『조선시대 단군묘 인식』, 경인문화사, 2009, 15-258면.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2004, 15-742면.  
신형식, 『고구려의 민족사적 위상』, 『선사와 고대』 28, 2008, 5-21면.  
심효섭, 『수륙제의 실행과 의례』, 『국사학』 40, 2004, 219-246면.  
오종일, 『시 삼백과 사무사』, 『동양철학연구』 38, 2004, 157-177면.  
유정엽, 『조선 초기 주역 중심의 유불대론 연구』, 『한국선학』 23, 2009, 489-520면.  
윤 정, 『조선 세조대 『훈사』 편찬의 정치사상적 의미』, 『한국학보』 28, 2002, 31-63면.  
이선행, 『한국 고대건국신화와 역철학적 연구의 타당성』, 『양명학』 18, 2007,

380-422면.

이종묵, 「조선시대 어제시의 창작 양상과 그 의미」, 『장서각』 19, 2008, 99-128면.

조규익, 『조선조 악장의 문예미학』, 민속원, 2005, 15-710면.

한성주, 「조선 세조대 모란위 정벌과 여진인의 종군에 대하여」, 『강원사학』 22·23, 2008, 89-113면.

한영우, 「동국통감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상)」, 『한국학보』 5, 1979, 2-42면.

## ABSTRACT

## A Study on the King's Poetry by King Sejo

Lee, hyun-jee\*

50 works of King Sejo's poems are recorded in 『Yeolseong Eoje(列聖御製)』 but any examination of the King Sejo's literature hasn't been performed. This study analyzed his recognition and view of poetry.

King Sejo often conferred King's poems as a symbol of special blessing for the formation of close relationship with worthy retainers as well as pursue for a method to reinforce the sovereignty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worthy retainers. He realized that the core assignment of the ruling reason was to prevent unexpected upheaval so that he put his efforts for the military government. During the course, the Joseon Dynasty found the identity of the descendent of Dangun, a son of Heaven and had a worldview focused on Joseon to dream Ho Wolilga(胡越一家). King Sejo as a conqueror king as well as a king who likes Buddhism in order to enlighten the people concentrated on the Buddhism propagation and emphasized the Book of Changes for the purpose of enlightenment of the bureaucrats as Confucians. He acknowledged not only Buddhism but also Confucianism for enlightenment of the governing class and the ruled class.

**Key Words** King Sejo, King's Poem, Akbu, Ho Wolilga, Buddhism & Confucianism

논문투고일 : 2010. 10. 15
심사완료일 : 2010. 11. 26
게재확정일 : 2010. 12. 3

---

\* Institute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